

바이든, 日 총리에 LP판 선물하며 거듭 “환영한다”

백악관 국민만찬 컨셉은 ‘활기찬 봄 정원’ 기시다 “상호 투자로 양국 경제 불가분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를 미국의 핵심 동맹에 걸맞게 극진히 대접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 문 앞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기시다 총리에게 “환영한다”를 반복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해산물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손으로 만든 다리 3개짜리 타자를 선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유명 가수 빌리 조엘이 사인한 석판화와 LP판 세트, 미국을 상징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담은 빈티지 레코드판을 가족 상자에 넣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유코 여사에게 두 여사가 지난해 봄 백악관 정원에 심은 왕벚나무의 그림과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여성 축구 경기에서 미국과 일본 팀이 사인한 축구공을 건넸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에는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고 국민 환영 만찬을 연다.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국민 만찬 메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만찬 컨셉트를 ‘활기찬 봄 정원’으로 소개했다.

그는 “우리와 비단으로 만든 나비가 만찬 테이블을 장식할 것”이라며 “나비의 우아한 비행은 양국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유코 여사를 환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만찬장 인테리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과 비단잉어, 부채 등으로 꾸며진 메뉴는 캘리포니아 롤에서 영감을 얻은 연어, 립아이스테이트, 체리아이스크림을 얹은 피스타치오 케이크 등이다. 좋아하는 미국 가수인 폴 사이먼이 노래 부를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

를 찾아 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 복무했거나 일본을 도울 것으로 의심받아 부당하게 구금된 일본계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러 워싱턴DC에서 IBM, 화이자, 보잉, 마이크로,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 기업들의 고위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여러분의 투자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일본의 성장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자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을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 투자자 양국 경제를 더 단단히 묶고 불가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29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위기에 처해있는 수단.

수단 내전 1년...아동 1천만명 폭력상황 노출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5일로 내전 발발 1년을 맞는 수단에서 1천만명 이상의 아동이 폭력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P)의 분석에 따르면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난해 4월 첫 달에 이미 아동 689만명이 폭력에 각-간접적으로 노출됐다.

이후 1년간 수단 전역에서 1천만명이 넘는 아동이 전투, 폭탄 테러, 급조폭발

장치(IED)·박격포·미사일 공격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전쟁에 동원되거나 성폭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단 아동 2명 중 1명은 최전선에서 5km 이내에 살고 있다. 이들은 심각하게 다치거나 숨졌고, 피난을 떠나거나 집과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다.

현재 수도 하르툼과 서부 다르푸르 일부 지역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은 전했다. /연합뉴스

美 항공청, 보잉 787 동체 제조 결함 여부 조사

엔지니어가 사고 위험 제보...보잉사 “즉각적인 문제 없어”

미국 항공 당국이 보잉사가 만드는 여객기인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품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잉사에서 드림라이너 업무를 했던 엔지니어인 샘 살레푸어가 연방항공청(FAA)에 문건을 보내 드림라이너의 사고 위험을 알렸다.

FAA 대변인은 살레푸어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살레푸어는 보잉사가 항공기의 동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섹션(부문 또는 구획)들을 생산라인에서 서로 연결해 조립하는 과정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드림라이너 동체는 여러 다른 제조사가 만드는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들을 연결하는 지점의 모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잉사는 제조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체의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폴 루이스 보잉사 대변인은 보잉사가 드림라이너를 광범위하게 시험했고 “즉각적인 비행 안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비행기의 어떤 부분에서 장기적인 피로도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복잡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항 중인 항공기들에는 여러 해 동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분석이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팀을 재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보잉사가 737 맥스 여객기의 도어 패널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간 사고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보잉사의 제조 관행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살레푸어의 주장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드림라이너는 동체를 만들 때 전통적인 금속 대신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 소재를 많이 써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를 적게 쓰는 게 특징이다.

2011년에 고객사에 처음 인도했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썼기 때문에 장기간 쌓이는 비행 스트레스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부티 앞바다서 난민선 난파...38명 사망, 6명 실종

동아프리카 지부티 앞바다에서 난민선이 난파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IOM은 사망·실종자를 제외한 22명은 구조됐으며 실종자도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부티 주재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난파 사고가 전날 발생했으며 자국 이주민 66명을 태운 배가 지부티에서 에멘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지부티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빨(대륙 동북부) 지역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 홍해를 건너 중

동 국가로 가려는 이주민이 주로 경유하는 국가로 매년 수만 명이 이 경로를 이용한다.

IOM 지부티 사무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이 경로에서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1천명 가까이 달한다. /연합뉴스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